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대교구 양산동 성당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 김헌숙수녀입니다.

입회 전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면서 수도 성소에 관심을 갖고 수녀원에 가면 고아들을 돌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당시 은혜학교가 임동 성당 뒤편 건물에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알게 되어 대학 수업이 없는 시간에 봉사활동으로 장애아동에게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사랑의 씨앗 수녀회 우리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계셨

는데 수녀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성소피정에 초대하였습니다. 그

래서 1986년 2월 입회하게 되었고

첫 파견을 유치원 책임자로 가

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

심에 응답하여 수도여정 34년

동안 22년은 아이들과 함께하

는 유치원 운영을 담당하게 되



었고, 행정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저

에게 미소를 만들어 주고 단순하며 소박한 삶으로 이끌어 주어 사랑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째 접어드는 본당생활은 또 다른 하느님 도구의 삶을 살게 하는 듯합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현재 어르신대학에서 성서 강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빈첸시오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마더 씨앗**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매 순간 만나는 이들에게 매일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은 밝고 환한 미소를 보내고 따스한 관심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레지오 훈화, 연령 별 단체 훈화, 예비자교리, 방문 및 상담 등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전하고 있지요. 제가 준비해서 나누는 말씀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는 우리수도회에 필요한 성소자 찾기, 씨앗 가족 관리 및



모집, 후원자 모집 등 담당 수녀님들과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여기며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ello! Greetings from Korea!
I am Sr. Kim, Hon Suk and I am ministering at Yangsan-dong Parish in Gwangju Archdiocese. As a college stud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 had a dream of taking care of orphans after entering a religious community. At that time, before moving to its current site, Eun Hae



School for the disabled children was right behind Im-Dong Cathedral. I happened to know that there was an opportunity to help the students as a volunteer. So, whenever I had no classes, I stopped there to take care of them during lunch time. As you know, our sisters were teaching at the school, and I got to know many sisters there and they invited me to a vocation retreat.



Finally I entered our community in February, 1986. My first ministry was a director of kindergarten. For twenty-two years of my thirty-four years of religious life, I worked in several kindergartens. My attitude to respond to God's call through fulfilling my ministry for children, and their smiling faces enabled me to live simplicity and learn to love



despite some burdens of administrative work as a director.

Now I have been working as a parish sister for eight years. This was another new experience and a chance to be an instrument of God. Those who are poor spiritually and mentally, especially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and the elderly experiencing loneliness, make me face our current reality.

I am helping the old to live and enjoy their lives through teaching them Bible and sharing faith with them at the parish. This is my effort to live out the spirit of St. Vincent de Paul. Remembering that Mother Seton said to the sisters, "I want you to start over again," I am trying to give a big smile and show interest to the people whom I encounter everyday so that they can also renew their daily lives. I also help them to experience God's presence through proclaiming the Word in the Legion of Mary meetings, several parish groups, and teaching catechism (RCIA), home visits, and counselling. I wish my little efforts of sharing God's Word are a strength and consolation for those with difficulties in their lives. Realizing that I become a small fire that enables them to overcome their obstacles, I am grateful to God who gave me talents. In addition to my ministry, I am trying to help and support the sisters who are in charge of vocation promotion, Seton Family, and recruiting sponsors.

